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

신 선 지

백 용 매†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에 소재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Wee 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고, 청소년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3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외상 경험 척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 사건 관련 반추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은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출, 분노억제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있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있었으나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복합외상 경험,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 본 연구는 신선지(2017)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백용매 /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Tel : 053-850-3233 / E-mail : ymbaik@cu.ac.kr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약 19~21%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Breslau, Davis, & Andreski, 1995).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 내적 또는 외적 고통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능적인 손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다.

미국정신의학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5)에서는 외상 경험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부상 또는 성폭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외상을 일으키는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실제 외상으로 인해 정신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외상이 아닌 사람에 의한 외상경험 때문인 경우가 많다(Allen, 1995). 복합외상이란 반복적(repeated)이고 대인간(interpersonal)에서 발생하는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특유한 심리적 증상을 말하며, 복합외상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Herman(1992, 1997)이 반복적 대인간 외상이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심리적 증상들을 단순 PTSD와 차별되는 복합 PTSD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부터이다(안현의, 2007).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외상에 노출된 아동이나 성인은 PTSD 진단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심층적이고도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외상 경험자들의 심리적 후유증을 포함하기 위하여 복합외상증후군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장진

이, 2010). 이렇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대인간 외상에 의한 복합적인 심리적 증상은 일회성 사건으로부터 유발되는 단순 PTSD보다 더 심층적인 심리구조인 성격 및 자기체계의 변화를 유발한다(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Pelcovitz, Van der Kolk, Mandel, Kaplan 및 Resik(1997)은 복합외상 후유증을 극단적 스트레스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명명하고, 이 진단의 범주를 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신체화 증상, 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 변화, 의미체계의 변화 등 6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Herman(1992)은 복합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분노 조절과 자기-파괴성에 대한 어려움을 포함하는 정서적 충동 조절에서의 변화, 둘째, 기억상실과 해리적 삽화, 이인증을 야기하는 주의와 의식의 변화, 셋째, 만성적인 죄책감 및 책임감과 극심한 수치심과 같은 자기-지각에서의 변화, 넷째, 신념 체계에서의 변화를 포함한 가해자에 대한 지각의 변화, 다섯째,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은 타인과의 관계 변화, 여섯째, 신체화 또는 다른 의학적 문제, 마지막으로 자신 또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찾는 것에 대한 무망감을 포함한 의미체계의 변화이다. 이와 같이 대인간 외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폭력성격을 띤 복합외상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의미체계를 포함한 인간 심리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Pelcovitz et al., 1997).

복합외상 경험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수준이 높았고(김재엽, 최권호, 2012)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며(조유경, 이지연, 2015) 대학생의 경우 정서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소연, 최은실, 2016). 또한 아동기 학대와 정서적 외상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대 경험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권효정, 2006; 박주연, 2010; 안규민, 2016), 타인과의 관계를 불안해하고 자신을 스스로 부적절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분노억제와 같은 역기능적 분노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이지영, 손정락, 2010). 복합외상 경험에 대한 국외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노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고(Browne & Finkelhor, 1986),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였으며(Shields & Cicchetti, 1998), 집단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분노를 내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높았다(Williams & Jenkins, 1986).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복합외상을 경험하면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을 겪게 되고, 특히 분노를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상 후 분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김지은, 2013). 분노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상 경험자의 분노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노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며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이다(임능빈, 1995).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이 91.7%이고, 이중 절반의 사람이 한 주에 3~5번의 분노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승미, 2016; 전경구, 1999 재인용). 이처럼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지만, 분노의 파괴적인 부분이나 폐해, 부정적인 결과 등 잘못된 분노표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게 된다. 즉, 분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pielberger, Jacob 및 Crane(1983)은 분노표현을 크게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하였다. 분노표출은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반응을 통하여 분노를 직·간접적으로 외현화하는 것으로써 욕설, 비난, 모욕, 화난 표정, 공격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억제는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분노를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압 또는 부정하며 분노를 유발한 상대를 피하고 내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앙심을 품는 행동을 말한다. 분노조절은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분노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도록 노력하는 표현 양식이다(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 따라서 건설적인 행동과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분노조절은 분노의 기능적 측면이지만, 공격성의 표출, 지나친 감정의 억압과 관련된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분노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분노표출이 강한 경우에는 공격성이 높았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심장질환 등을 경험하며 약물남용과도 관련성이 높았다(고영인, 1993; 김교현, 2000; 김교현, 전경구, 1997; 김세진, 김교현, 2005; 안운영, 2012). 분노억제가 강한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감이 많이 나타났고, 편집증과 신경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사회적 위축과 자살 위험성,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았다(고영진, 안창일, 2003; 김교현, 2000; 김교현, 전경구, 1997; 김진이, 2013; 안운영, 2012; 이훈진, 2000; 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이처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문제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한 복합외상 경험은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인지적·정서적 요인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인지적 처리과정은 침습적 반추이다(Cann, Calhoun, Tedeschi, Triplett, Vishnevsky, & Lindstrom, 2011). 외상 사건은 개인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동적이고 불수의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떠올리기 싫은 외상 사건이 자동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야기하고(Cann et al, 2011),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거나 정서적 고통 및 정서 조절 곤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억제하려고 시도한다(곽아름, 2015; 정주리, 2016). 그러나 이러

한 억제 시도는 침습적 반추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며 개인은 다시 생각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를 되풀이 하는데,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Lane & Wegner, 1995; Marcks & Woods, 2005). 또한 계속적인 회피는 부정적인 정서를 정화시키는 것을 막고(Stiles, Shuster, & Harrigan, 1992), 인지적 구조화 및 자기 이해의 기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정확한 현실 판단과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Taylor, Gould, & Brounstein, 1981).

반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지금까지 우울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Kelly, Matheson, Ravindran, Merali, & Anisman, 2007; Papageorgiou & Wells, 2003), 2000년대부터 분노에서의 반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Thomsen, 2006).

반추가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olen-Hoeksema와 Rusing(1998)는 사건에 대한 반복적 사고는 고의, 비난, 부당한 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이로 인해 분노가 유지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Martin과 Dahlen(2005)은 인지정서 조절 척도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사용하는 인지 대처 전략들이 우울, 분노, 스트레스, 걱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반추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ushman, Bomacci, Pedersen 및 Vasquez(2005)의 연구에서도 반추를 하는 사람들이 사소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부적응적인 표현방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한 충격과 부정적 평가가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 일어난다(두경희, 2013).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Lewis(1971)는 수치심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상태 수치심과 특성 수치심이다. 상태 수치심은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개인이 당황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상황과 관련된 일시적인 수치심은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보통은 그 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역기능적이라 할 수 없다(Kaufman, 1989). 반면 일시적인 수치심과는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하여 만성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존재하는 수치심이 있다(이연규, 최한나, 2013). 성격적인 특성으로 굳어진 수치심은 특별히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수치심 중 이처럼 개인의 전반적이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경험하는 수치심을 특성 수치심 또는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한다(김민경, 현명호, 2013).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가졌던 자기체계(self system)가 손상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안현의, 주혜선, 2012)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전철은, 현명호, 2003;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그리고 외상사건을 경험한 이후 가지게 되는 수치심의 감정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신병리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며(Chan, Hess, Whelton, & Yonge, 2005), 전쟁 참전의 경험(Leskela, Doeperink, & Thuras, 2002; Wong & Cook, 1992), 범죄와 강간의 피해를

받은 경험(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아동기 성학대의 경험(Feiring, Taska, & Lewis, 2002)과 같은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수치심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위축되고 자신이 무능력하며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하므로, 죄책감, 분노, 공격성 등과 같은 여러 이차적 정서를 유발한다(장운숙, 2016). 특히 Averill(1983)은 분노는 개인적인 자괴심의 상실이나 자존감의 상실을 유발시키는 수치심에 의해 야기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Tangney, Wagner, Hill-Barlow, Marschall 및 Gramzow(1996)는 수치심을 내면화 할수록 분노를 느끼는 자신에게 분노하고 이러한 분노 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해숙, 정남운, 2011). 그리고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한다(황지연, 2014). Nathanson(1987)도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의 다수 연구들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김승미, 2016; 임정우, 2015; 정해숙, 정남운, 2011; 최임정, 심혜숙,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복합외상 경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은 역

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각 요인들에 대한 단편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즉,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인지적 요인인 침습적 반추와 정서적 요인인 내면화된 수치심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유발되지만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 구분하고, 복합외상 경험으로 인해 유발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겪는 분노표현 문제의 해결을 돕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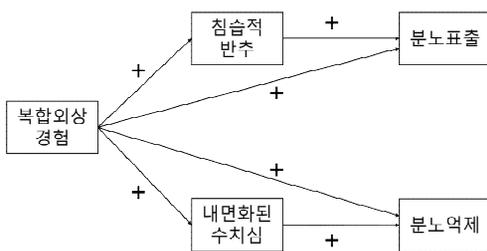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가설 1. 복합외상 경험은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3.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 Wee 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에서 연구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취약한 연구대상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전에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혹은 기관의 담당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실시시간,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상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재외상 경험, 심리적 불편함, 불안감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편하면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고, 설문지의 앞부분에 본 연구자의 연락처와 E-mail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전달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내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시킨 후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들에게만 설문지를 분배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5분이었으며, 총 313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한 75부를 제외한 23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91	80.3
	여	47	19.7
나이	13	4	1.7
	14	8	3.4
	15	17	7.1
	16	44	18.5
	17	72	30.3
	18	70	29.4
	19	23	9.7
	20	3	1.3
학년	중1	3	1.3
	중2	11	4.6
	중3	14	5.9
	고1	24	10.1
	고2	35	14.7
	고3	67	28.2
	중퇴	84	35.3

측정도구

복합외상 경험 척도

복합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Van der Kolk(1996)가 개발하고, 고나래(2007)가 번안 및 타당화한 외상 경험 척도(Trauma Antecedents Questionnaire: T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능감, 안전감, 방임,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분리경험, 가족 내 비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가정 폭력목격, 다른 외상 경험(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술과 약물 남용의 노출 등 10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유능감과 '안전'은 외상 경험 발생에 저항하는 적응적 기능과 보호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른 9가지 영역은 외상 혹은 심각한 사건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고 심각한 외상 경험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TAQ 척도 중 복합외상 경험과 관련된 신체적 학대 5문항, 성적 학대 4문항, 정서적 학대 및 방임 6문항 등 3가지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0점: 전혀 없었다~3점: 자주 있었다)로 평정하고,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45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총점이 0점인 학생은 피해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나래(2007)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5였다.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척도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Krasner 및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성분노 10문항, 상태분노 10문항, 분노표출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조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0점: 전혀 그렇지 않다~3점: 매우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표현하는 각 방식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하위 요인 중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에 해당하는 총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한덕웅, 전경구, 이장호(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침습적 반추 척도

외상 관련 반추를 측정하기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2013)이 변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침습적 반추 10문항, 의도적 반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0점: 전혀 아니다~3점: 자주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Cann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k (1988)이 개발하고,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변안 및 타당화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절감 10문항, 공허 5문항, 자기차별 5문항, 실수불안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0점: 그런 경우가 없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Preacher & Hayes, 2004; 2008; Hayes, 2011; Hayes & Preacher, 2010)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병렬적 중다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2개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매개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에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복합외상 경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복합외상 경험은 분노표출($r=.40, p<.01$), 분노억제($r=.51, p<.01$), 침습적 반추($r=.60, p<.01$), 내면화된 수치심($r=.51,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침습적 반추도 내면화된 수치심($r=.57, p<.01$), 분노표출($r=.35, p<.01$), 분노억제($r=.52,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내면화된 수치심도 분노표출($r=.26, p<.01$), 분노억제($r=.77, p<.01$)와 정적

표 2.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N=238)

변인	1	1-1	1-2	1-3	2	3	3-1	3-2	3-3	3-4	4	4-1	4-2
1. 복합외상 경험	1												
1-1. 정서적 외상	.89**	1											
1-2. 신체적 외상	.88**	.59**	1										
1-3. 성적 외상	.50**	.32**	.36**	1									
2. 침습적 반추	.60**	.56**	.49**	.30**	1								
3. 내면화된 수치심	.51**	.49**	.41**	.25**	.57**	1							
3-1. 부적절감	.50**	.48**	.40**	.27**	.53**	.94**	1						
3-2. 실수불안	.45**	.47**	.34**	.14*	.47**	.89**	.79**	1					
3-3. 자기처벌	.40**	.37**	.34**	.20**	.51**	.90**	.78**	.76**	1				
3-4. 공허	.48**	.45**	.40**	.25**	.58**	.92**	.81**	.74**	.83**	1			
4.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52**	.50**	.44**	.17**	.49**	.57**	.48**	.56**	.51**	.57**	1		
4-1. 분노표출	.40**	.38**	.34**	.13*	.35**	.26**	.20**	.28**	.21**	.29**	.89**	1	
4-2. 분노억제	.51**	.50**	.42**	.17**	.52**	.77**	.68**	.73**	.72**	.73**	.84**	.50**	1
평균	4.95	2.80	1.97	.18	4.24	15.13	5.18	3.84	3.03	3.07	11.63	6.98	4.65
표준편차	5.74	3.14	2.86	.86	6.33	16.47	6.55	3.60	3.49	4.29	9.15	5.68	4.87
왜도	1.85	1.42	2.02	.76	1.69	1.73	1.98	1.15	1.79	1.73	.93	1.14	1.20
첨도	3.85	1.70	4.12	-1.10	2.26	3.00	4.46	.86	3.74	2.63	.31	.74	1.34

* $p < .05$, ** $p < .01$, *** $p < .001$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통해 주요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나머지 변인들의 VIF 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59에서 1.83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인 10보다 작은 것이 확인되었고, 공차한계도 .55에서 .63까지 분포하여 기준수치인 .10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표출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40, p<.001$).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침습적

반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60, p<.001$).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51, p<.001$). 넷째, 복합외상 경험($\beta=.29, p<.001$)과 침습적 반추($\beta=.18, p<.05$)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을 많이 하지만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z=2.03, p<.05$).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분노억제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51, p<$

표 3. 복합외상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검증 (N=238)

매개모델 검증단계	B	β	t	F	R ²
1단계 (독립 → 종속)					
복합외상 → 분노표출	.40	.40	6.69***	44.79***	.16
2단계 (독립 → 매개)					
복합외상 → 침습적 반추	.66	.60	11.47***	131.52***	.36
복합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46	.51	9.06***	82.10***	.2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복합외상 → 분노표출	.29	.29	3.83***		
침습적 반추 → 분노표출	.15	.18	2.07*	16.97***	.42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표출	.01	.01	.20		

* $p<.05$, ** $p<.01$, *** $p<.001$

표 4. 복합외상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검증 (N=238)

매개모델 검증단계	B	β	t	F	R ²
1단계 (독립 → 종속)					
복합외상 → 분노억제	.43	.51	9.12***	83.09***	.26
2단계 (독립 → 매개)					
복합외상 → 침습적 반추	.66	.60	11.47***	131.52***	.36
복합외상 → 내면화된 수치심	1.46	.51	9.06***	82.10***	.26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복합외상 → 분노억제	.12	.14	2.69**		
침습적 반추 → 분노억제	.04	.05	.85	123.80***	.61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20	.68	13.1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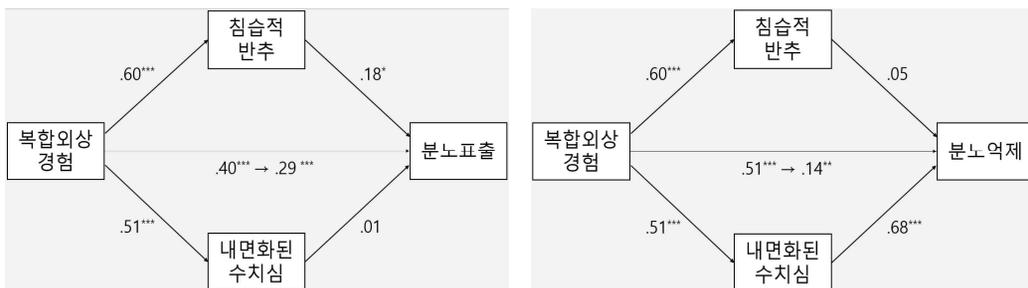


그림 2.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

.001).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침습적 반추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0, p < .001$).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1, p < .001$). 넷째, 복합외상 경험($\beta = .14, p < .01$)과 내면화된 수치심($\beta = .68, p < .001$)이 높을수록 분노억제를 많이 하지만 침습적 반추는 분노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는 유의하

였다($z = 7.44,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 청소년 23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외상 경험,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출, 분노억제는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복합외상의 하위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적 외상, 신체적 외상, 성적 외상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높는데, 이는 복합외상을 경험할 경우 하나의 외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외상도 함께 중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 가지 유형의 복합외상을 경험했을 때보다 여러 유형의 외상을 함께 경험했을 경우 심리적 증상은 더 심각한 수준을 보이게 된다(최은영, 안현의, 2011; Wind & Silvern, 1992).

둘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이 침습적 반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안현의, 주혜선, 2012;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Tedeschi & Calhoun, 2006), 침습적 반추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분노를 일으키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표출을 많이 한다(Rubin, Berstsen, & Bohni, 2008)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복합외상 경험이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승미, 2016; 김혜지, 2016; 안현의, 주혜선, 2012; 오유미, 2016).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해숙, 정남운, 2011)와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수미, 2009)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복합외상 경험과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복합외상 경험이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유발하지만 이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동시에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통제하게 되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침습적 반추만이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 외상 사건에 대해 자동적이고 침투적인 반추적인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고(안현의, 박철욱, 주혜선, 2012; Tedeschi & Calhoun, 2006), 또한 외상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체계가 손상될 정도의 수치심도 경험하게 된다. 반추를 할 경우 과거 외상 기억들이 정서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수반하여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위협으로 지각하게 하고(민지원, 2014)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소한 사건에 대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지만(Wegner, 1989),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될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하여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회피나 억압, 부인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Lewis, 1971)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합외상 경험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병렬적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침습적 반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외상 경험이 수치심과 많은 관련성이 있고(김승미, 2016; 김혜지, 2016;

안현의, 주혜선, 2012; 오유미,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정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김남연, 양난미, 2012; 김승미, 2016; 최임정, 심혜숙, 2010), 그리고 특히 분노를 더 억제한다는 연구(정해숙, 정남운, 2011; 황지연, 2014; Nathanson, 1987; Tangney, 1996)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복합외상 경험이 침습적 반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일치한다(안현의, 주혜선, 2012;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Tedeschi & Calhoun, 2006). 그러나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침습적 반추가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rtin & Dahlen, 2005)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분노 표출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복합외상 경험과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수치심을 내면화 시키지만 반추는 과거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고통들이 의식에 침투하여 과거 외상사건을 구체화 시키고 외상 가해자의 행동을 다시 생각함으로써(권희주, 2014)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외부로 표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은 손상된 자기감을 형성시켜 자신에 대한 이해 결여와 정체성 혼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분노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게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수치심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관계와 사회의 규범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로서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 공을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고,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 발달단계는 자의식이 강해지고 객관적 지각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시기로 급격하게 인지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만큼 타인의 시각에도 예민해진다(윤혜라, 2017).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청소년기의 복합외상 경험은 수치심을 내면화하게 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자신의 감정보다 환경과의 조화를 더욱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관계지향적인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분노가 유발되더라도 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미림, 홍혜영, 2013; 최상진, 정태연, 2001).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복합외상 경험과 침습적 반추,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간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내면화된 수치심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침습적 반추와 분노의 관계, 가정폭력 경험 유무와 분노 및 분노표현 방식의 관계와 같이 각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복합외상을 경험하더라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는 서로 다른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함께 고려하여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복합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의

상 사건에 대한 침습적 반추 수준이 높을 경우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수준이 높을 경우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복합외상 경험자들이 겪는 분노표현 문제의 해결을 돕고 치료적 개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반대되는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으로 비롯되는 분노표현의 문제를 침습적 반추라는 인지적 과정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치료적 전략 수립과 개입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분노표출 문제를 일으키는 피검자의 경우 인지적인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침습적 반추를 목적지향적인 의도적 반추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복합외상을 경험했더라도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더 나아가 외상 후 성장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수치심에 대한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복합외상 경험자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줌으로써 분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기존의 복합외상 연구에서 대인관계 문제, 정서행동문제, 경계선 성격특성, 자기체계 손상, 우울 등 다양한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없었고, 특히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나눠 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복합외상 경험이 차별적인 매개경로를 통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의 변동이 심한 발달단계이기 때문에 분노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치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외상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 등의 변인은 부정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불성실한 응답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법의 연구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복합외상 유형 중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비해 성적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족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및 복합외상 유형의 비율을 균형있게 분포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 밖 청소년 쉼터, Wee센터, 실업계 고등학교 등에서 복합외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외상 경험의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복합외상 수준이 임상적 수준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 수준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상경험 척도

(TAQ)는 정서적 외상, 신체적 외상, 성적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외상 사건을 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Spielberg 등(1995)의 연구에서 분노 표출과 분노억제는 동일한 차원이 아닌 독립된 차원의 분노표현 양식임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상관인 .50으로 높게 나타났고, 분노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 억제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이 과도한 억제로 인해 폭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상관인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모형에서 구조적 관계를 통해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복합외상 경험이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침습적 반추와 내면화된 수치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외상 기억과 외상관련 정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복합외상을 경험한 후 침습적 반추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되는지, 반대로 수치심이 내면화된 후에 외상 사건에 대한 반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본다면 복합외상 경험자들의 분노표현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건, 안창일 (2003). 분노-억압 집단의 방어적 투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641-660.

고영인 (1993).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8(1), 133-164.

곽아름 (2015).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고통제방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효정 (2006).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자기조절능력 및 분노 표현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권희주 (2014). 고통감내력,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의 관계: 청소년과 성인집단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교현 (2000). 분노 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181-192.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 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61-176.
- 김세진, 김교현 (2005). 아동의 외상경험에 대한 자기노출이 분노 반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47-65.
- 김소연, 최은실 (2016). 아동·청소년기 복합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7-287.
- 김수미 (2009). 수치심 경향성과 내외통제성이 분노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미 (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최권호 (2012). 중북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북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정규 (1998).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1), 331-345.
- 김진선 (2017).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 (2013). 배척 민감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방식, 정서표현양가성, 자의식적 정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지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외상경험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경희 (2013).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지원 (2014).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통제감을 매개로 역경 후 성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0). 학대받은 아동의 귀인성향이 우울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의도귀인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521-540
- 안규민 (2016). 아동의 학대경험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윤영 (2012). 중학생의 분노 사고와 분노 표현의 관계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라 (2017). 청소년의 수치심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2007). 복합외상 (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105-119.
- 안현의, 박철욱, 주혜선 (2012). 외상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 안현의, 장진이, 조하나 (2009). 자기체계의 손상으로 본 복합외상증후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283-301.
- 안현의, 주혜선 (2011). 단순 및 복합 외상 유

- 형에 따른 PTSD 의 증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69-887.
- 안현의, 주혜선 (20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자서전적 외상 기억의 조직화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97-220.
-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 심기선 (2013). 한국판 사건관련 반추 척도 (K-ERRI)의 타당화. 인지행동치료, 13(1), 149-172.
- 오유미 (2016). 아동·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과 성인기 대인외상의 관계: 해리경험, 관계중독,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진환 (2003). 아동의 피학대 경험이 분노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규, 최한나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2), 21-42.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영, 손정락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간 관계에서 불안정애착과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역할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841-851.
-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정서심리학. 서울: 범문사.
- 이훈진 (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427-438.
- 임능빈 (1995). 동양사상과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임문영 (2014). 분노반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우 (2015).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숙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 양식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2010). 반복적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기체계 손상과 심리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철은, 현명호 (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4), 763-776.
- 전현숙, 손정락 (2011).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77-396.
-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유경, 이지연 (2015).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역기능적 분노표현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6(1), 323-343.
- 주혜선, 심기선, 안현의 (2015). 침습적 외상 기억과 외상관련 정서의 중단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59-183.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2), 21-38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

- 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20.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60-78.
- 황지연 (2014).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reslau, N., Davis, G. C., & Andreski, P. (1995). Risk factors for PTSD-related traumatic events: a prospective 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2*(4), 529-535.
- Browne, A., & Finkelhor, D. (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ann, A., Calhoun, L. G., Tedeschi, R. G., Triplett, K. N., Vishnevsky, T., & Lindstrom, C. M. (2011). Assessing posttraumatic cognitive processes: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Anxiety, Stress, and Coping, 24*(2), 137-156.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141), 163-170.
- Chan, M. A., Hess, G. C., Whelton, W. J., & Yonge, O. J. (2005). A Comparison between Female Psychiatric Outpatients with BPD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Terms of Trauma, Internalized Shame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Traumatology, 11*(1), 23-40.
- Cook, D. R. (1988).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Feiring, C., Taska, L., & Lewis, M. (2002). Adjustment following sexual abuse discovery: the role of shame and attributional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79-92.
- Foa, E. B., Riggs, D. S., Dancu, C. V., & Rothbaum, B. O.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4), 459-473.
- Hayes, A. F., & Preacher, K. J. (2010).

- Quantifying and tes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when the constituent paths are nonlinea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5(4), 627-660.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Herman, J. L. (1997). *Trauma and recovery* (Vol. 551). Basic Books.
- Kaufman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New York.
- Kelly, O., Matheson, K., Ravindran, A., Merali, Z., & Anisman, H. (2007). Ruminative coping among patients with dysthymia before and after pharmacotherapy. *Depression and Anxiety*, 24(4), 233-243.
- Kerr, M. A., & Schneider, B. H. (2008). Anger ex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559-577.
- Kessler, R. C., Sonnega, A., Bromet, E., Hughes, M., & Nelson, C. B. (199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2(12), 1048-1060.
- Kirkegaard Thomsen, D.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rumination and negative affect: A review. *Cognition and Emotion*, 20(8), 1216-1235.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ubany, E. S., & Watson, S. B. (2003). Guilt: Elaboration of a multidimensional model. *The Psychological Record*, 53(1), 51-90.
- Lane, J. D., & Wegner, D. M. (1995).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secre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237-253.
- Leskela, J., Dieperink, M., & Thuras, P. (2002). Sham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3), 223-226.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419.
- Lopez, F. G., Gover, M. R., Leskela, J., Sauer, E. M., Schirmer, L., & Wyssmann, J. (1997). Attachment styles, shame, guilt, and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orientations. *Personal Relationships*, 4(2), 187-199.
- Lowinger, T., & Solomon, Z. (2004). PTSD, guilt, and shame among reckless drivers. *Journal of Loss and Trauma*, 9(4), 327-344.
- Marcks, B. A., & Woods, D. W. (2005). A comparison of thought suppression to an acceptance-based technique in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trusive thoughts: A controlled evaluat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4), 433-445.
- Martin, R. C., & Dahlen, E. 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49-1260.
- Nathanson, D. L. (1987). *The shame/pride axis*.
- Newman, E., Riggs, D. S., & Roth, S. (1997).

- Thematic resolution, PTSD, and complex PTSD: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and trauma related diagnos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2), 197-213.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241-285.
- Papageorgiou, C., & Wells, A. (2003). An empirical test of a clinical metacognitive model of rumination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261-273.
- Pelcovitz, D., Kaplan, S. J., DeRosa, R. R., Mandel, F. S., & Salzinger, S. (2000). Psychiatric disorders in adolescent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physical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3), 360-369.
- Pelcovitz, D., Van der Kolk, B., Roth, S., Mandel, F., Kaplan, S., & Resick, P. (1997). Development of a criteria set and a structured interview for disorders of extreme stress (SID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1), 3-16.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usting, C. L., & Nolen-Hoeksema, S. (1998). Regulating responses to anger: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angry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90-803.
- Scheff, T. J. (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95-406.
-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8), 361-365.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Springer New York.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 Spielberger, C. D., & Vagg, P. R. (1995). *Test anxiety: A transactional process model*.
- Stiles, W. B., Shuster, P. L., & Harrigan, J. A. (1992). Disclosure and anxiety: A test of the feve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80-988.

- Street, A. E., & Arias, I. (2001). Psychological ab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battered women: Examining the roles of shame and guilt. *Violence and Victims, 16*(1), 65-78.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 Tangney, J. P., Wagner, P. E., Hill-Barlow, D., Marschall, D. 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angney, J. P., Wagner, P., Fletcher, C., & Gramzow, R. (1992). Shamed into anger? The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anger and self-report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69-675.
- Taylor, D. A., Gould, R. J., & Brounstein, P. J. (1981). Effects of personalistic self-disclos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3), 487-492.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A clinical approach to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405-419*.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6). Expert companions: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ractice.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291-310*.
- Terr, L. C. (1991). *Acute responses to external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 comprehensive textbook, 755-763.
- Van der Kolk, B. A. (1996).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trauma: *Self-regulation, Stimul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ological Development*.
- Van der Kolk, B., Pelcovitz, P., Roth, S., Mandel, F., McFarlane, A., & Herman, J. (1996). Dissociation, affect regulation and somatization: the complex nature of the adaptation to trauma. *David Baldwin's Trauma Information Pages*.
- Wegner, D. M. (1989). *White bears and other unvented thoughts: Suppression, obsession, and the psychology of mental control*. Penguin Press.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 Williams, D. A., & Jenkins, J. D. (1986). *Anger, assertiveness and the Type-A Behavior Patter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Wind, T. W., & Silvern, L. (1992). Type and Extent of Child Abuse as Predictors of Adul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7*(4), 161-281
- Wong, M. R., & Cook, D. (1992). Shame and its contribution to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4), 557-562.
- 원고접수일 : 2017. 10. 17.
수정원고접수일 : 2017. 11. 21.
게재결정일 : 2017. 12. 14.

The Influence of a Complex Trauma Experience on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The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Rumination and Internalized Shame

Seon Ji Shin

Yong Mae Baek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complex traumatic experience on anger exp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in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rusive rumination and internalized shame. For this purpose, 313 participants were sampled from middle schools, high schools, youth support centers, dream local management centers, Wee centers, probation centers, and juvenile schools located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SPSS PROCESS MACRO was us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instruments used included the trauma experience scale, 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scale, event - related rumination scale, and internalized shame scal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lex traumatic experie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rusive rumination, internalized shame, anger exp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Second, the effect of complex trauma on anger expression was mediated by intrusive rumination, but it was not mediated by internalized shame. Third, internalized shame mediated the effect of complex trauma experience on anger suppression, but intrusive rumination had no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omplex trauma, dysfunction anger expression, intrusive rumination, internalized shame

표 2.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

(N=238)

변인	1	1-1	1-2	1-3	2	3	3-1	3-2	3-3	3-4	4	4-1	4-2
1. 복합외상 경험	1												
1-1. 정서적 외상	.89**	1											
1-2. 신체적 외상	.88**	.59**	1										
1-3. 성적 외상	.50**	.32**	.36**	1									
2. 침습적 반추	.60**	.56**	.49**	.30**	1								
3. 내면화된 수치심	.51**	.49**	.41**	.25**	.57**	1							
3-1. 부적질감	.50**	.48**	.40**	.27**	.53**	.94**	1						
3-2. 실수불안	.45**	.47**	.34**	.14*	.47**	.89**	.79**	1					
3-3. 자기처벌	.40**	.37**	.34**	.20**	.51**	.90**	.78**	.76**	1				
3-4. 공허	.48**	.45**	.40**	.25**	.58**	.92**	.81**	.74**	.83**	1			
4. 역기능적 분노표현 양식	.52**	.50**	.44**	.17**	.49**	.57**	.48**	.56**	.51**	.57**	1		
4-1. 분노표출	.40**	.38**	.34**	.13*	.35**	.26**	.20**	.28**	.21**	.29**	.89**	1	
4-2. 분노억제	.51**	.50**	.42**	.17**	.52**	.77**	.68**	.73**	.72**	.73**	.84**	.50**	1
평균	4.95	2.80	1.97	.18	4.24	15.13	5.18	3.84	3.03	3.07	11.63	6.98	4.65
표준편차	5.74	3.14	2.86	.86	6.33	16.47	6.55	3.60	3.49	4.29	9.15	5.68	4.87
왜도	1.85	1.42	2.02	.76	1.69	1.73	1.98	1.15	1.79	1.73	.93	1.14	1.20
첨도	3.85	1.70	4.12	-1.10	2.26	3.00	4.46	.86	3.74	2.63	.31	.74	1.34

* $p < .05$, ** $p < .01$, *** $p < .001$